

다양하고 실용적인 사업마련을 위해 노력할 터



김봉석
본회 전무(우수목장 선정위원)

올해는 ‘국민과 함께하는 우리우유, 깨끗한 우리목장’을 슬로건으로 깨끗한목장가꾸기 선포식을 갖고 꾸준히 사업을 이어온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점차 강화되어가는 환경규제 속에 우리농가 스스로 목장환경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우리우유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자는 목적에서 운동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습니다. 무차별적인 유제품 수입개방 시대 속에 우리의 대처는 국내산 우유의 안전성과 위생에 대한 확증에서 시작됩니다. 세계수준의 유질을 자랑하는 국내산 우유이지만 어떠한 생산조건에서 나오는지 온 국민들에게 당당히 알릴 수 있는 자신감을 갖추도록 초점을 두었습니다.

주로 목장 요소요소마다 청결하게 유지하고 바람직한 퇴비처리로 자연순환 농업을 잘 실천하자는 내용입니다.

사업초기에는 회원들께서 본 운동을 실천도 하기 전에 돈 있고 시간 많은 목장주만 하는 일이라든지, 목장전체를 뜯어고쳐야 하는 작업이니 하는 오해들을 갖지들 않으실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수사례 보급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 본 운동의 실천은 소비자 및 지역주민에 대한 생산자로서의 배려이자,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가기 위한 필요 최소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어떤 낙농

가도 언제든지 본인 형편에 맞게 실천할 수 있는 노력으로 인식되도록 운동참여를 장려해 왔습니다.

그간 걸어온 길을 생각해보면

2005년 동운동 선포와 동시에 본격적인 우수목장 사례발굴과 보급 이전인 원년부터 농가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마련과 홍보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친환경 낙농세미나 등 학술행사 개최, 깨끗한목장가꾸기 농가실천 사항으로 알려지기도 하고 현재 활용되는 우수목장 평가표의 근간이 되는 목장환경 개선표준 매뉴얼 연구용역을 실시되었고 핸드북 형태로 농가에 보급되었습니다. 이후 농가계도를 위해 포스터, 만화 소책자, 농가 자가점검판, 길라잡이 매뉴얼 등을 배포하였고 관련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온라인상에서의 정보접근성을 보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 비록 연속적인 사업으로서는 유지할 수는 없었지만, 목장주변 식재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갖기도 했고, 묘목 보급사업도 진행한 바 있는데 높은 관심을 보이는 모습에서 사업의 주관단체로서 농가들의 참여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우수목장으로 선정된 목장의 사례들을 농



가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수목장 견학프로그램을 많은 관심 속에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협회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는 각계에서의 관심들이 일조하였습니다. 일부 조합이나 언론사에서도 유사 운동을 전개하면서 한때 붐을 조성하여 목장환경 개선에 대한 농가의식 제고에 관심을 모으기도 하였습니다.

근본적인 축사 내 사육환경 개선보다는 아름다운 외양 꾸미기에 치중하는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되돌아보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깨끗한목장가꾸기 운동의 저변을 넓힌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들 주체들 대부분이 사업을 지속하지 않거나, 겨우 명맥을 잇고 있는 지역이 일부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간혹 관리에 소홀한 목장을 목격할 때면 미진한 농가참여도를 확인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몇몇 우수사례에서 긍정적인 마인드와 농가참여 의지에서 보람 내지는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이유를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성공적인 사례 이면에 지자체, 지역조합에서의 관심과 행정적 지원이 더해지고 있음을 볼

때 대대적인 농가 계도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운동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과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 주는 듯 합니다.

대외적 위상

대외적으로도 깨끗한목장가꾸기 운동은 성공적인 생산자 자율운동 사례로 주목되어 왔습니다. 지난 2007년 농림부 혁신사업으로 꼽힌 바 있으며,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자구노력의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된 2010년, 2011년 당시에는 질병예방 차원에서 사육단계 위생에 있어 다시금 조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통해서도 동운동의 사례가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해소를 위한 모델로서 소개된 바 있었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우수목장 시상에 있어 국무총리상이 신설되었습니다. 당해 최고의 우수목장 사례로서 전국 낙농가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영예에 걸맞은 상이 마련된 것입니다. 농식품부와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기울인 누차의 노력 끝에 얻어낸 성과이기도 하지만, 대외적으로 깨끗한목장가꾸기 운동의 가치가 인정되어 그 위상을 보여



준 결과라 생각합니다.

주체단체로서의 단순한 의무감에서가 아닌, 운동의 성격과 필요성 때문에 깨끗한목장가꾸기 운동은 몇 년 하고 말 단발성 캠페인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물론 동운동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단기간 내에 다수의 농가들이 계도된다면 생각할 필요도 없겠지만 말입니다. 이에 협회는 본 운동 자체가 농가인식 제고뿐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져야만 비로소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 성격인만큼, 어떻게 하면 농가들이 운동참여에 필요성을 항상 인지하고,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

부심하며, 연속사업으로서 깨끗한목장가꾸기 운동을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잘 가꾸어진 깨끗한 목장이란

역대 우수목장들로 선정된 상위수상목장들의 결과를 보면 몇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언컨데 깨끗한목장가꾸기 운동을 하느냐 마느냐는 납유량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목장 요소요소에서 느껴지는 육감이 말해주지만, 사실 모든 결과는 목장주의 성정과 생활패턴에서도 비롯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들의 공통된 모습은 밝은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는 마음의 여유

가 있었고 자신의 결점은 기꺼이 고치려는 겸허함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사람만큼이나 소들의 편안함에도 관심이 많아 실제로 목장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소들은 운동장 어디에도 특정구역에 몰림이 없이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 모습이며, 여기저기 편안히 앉아 되새김을 하는 안정된 소들의 모습에서 심사자들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목장의 환기와 바닥관리의 수준은 얼마나 목장주가 신경을 쓰느냐의 문제로, 부지런한 목장주의 소들은 건강해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외부인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 호기심을 갖고 다가오는 개체들이 많은 목장들은 대개 평가결과가 좋았습니다. 평소 목장주의 배려로 다져진 친근함과 편안함의 결과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충분한 부숙기간동안 올바른 축분뇨처리를 통한 질높은 퇴액비를 생산해 자가사료포 환원이나 인근 경종농가에 원활한 공급으로 자연순환농업이 잘 이뤄지도록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축분뇨가 제대로 된 자원으로서 토양에 환원되어질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

하자는 목장주의 마인드가 돋보였습니다.

이밖에도 우수목장으로 선정된 목장들은 본인들의 형편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선행을 베푸는 면모를 확인 할 수 있었고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2세 낙농인은 웃어른을 공경하는 가풍 속에서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근면함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서인지 부모세대와 갈등없이 낙농을 생업으로 받아들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

고착화된 방식을 개선한다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습관으로 굳어져 고수해온 목장관리 방식은 어쩌면 자신만의 작업편의에서 나온 결과이거나, 저마다 습득한 이론의 실천, 혹 누군가에게는 오랜 실행착오 이후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협회에서 제공한 정보대로 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거나, 본인의 방식이 더 낫다는 확신이 없다면 실천을 권하고 싶습니다.

자연풍향에 따라 환풍기를 재배치해보고 축사 내 더운공기가 지붕을 통해 나갈 수 있도록 공기통로를 터준다든지, 수분함량

을 낮춰 충분히 부속이 이뤄지도록 퇴비사에 환풍기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퇴비교반을 해주는 방법들은 비용도 많이 소요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탁월한 효과에 비한다면 수고로움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금세 찾을 수 있는 소소한 문제부터 남들에게 떳떳히 보여주기 부끄러운 문제, 나아가선 내가 미처 모르지만 전문가들 눈에 문제되는 부분들까지 개선되어야 할 점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해봄으로서 실천의 부담을 떨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깨끗한목장가꾸기 운동의 시작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모두 본인만의 깨끗한 목장가꾸기를 시작해보는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협회도 농가현장 깊숙히 뿌리내려져 낙농산업에 도움이 되는 깨끗한목장가꾸기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하고도 실용적인 사업마련으로 새로운 10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